

자유전공학부장 인터뷰 / 서경호 교수

단과대학탐방

인터뷰

이수형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선임연구원

글

김영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2009년 4월 7일 (화) 오후 3시,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실 (18동 112호)에서 서경호 학부장과 만나 자유전공학부의 운영과 CTL과의 관계에 대한 대답을 나눴다.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수형(이하 '이'):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어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요한 시기에 학부장이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자유전공학부라는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올해 인문계열 93명, 자연계열 64명의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설로 인해 더 이상 법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게 되었고 그 157명이 자유전공학부에 배정된 것인데,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자유전공학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냐는 등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대학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곳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경호(이하 '서'): 자유전공학부를 만들면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법대 정원으로 자유전공학부가 생겼으므로 법대에 진학할 학생이 많을 것이라는 형태의 고정관념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근거 없는 것입니다. 법대의 정원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실제로 법대에 갈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부에서 특히, 언론에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자유전공학부에 대해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의 법대 정원이 자유전공학부 정원이 된 것일 뿐, 법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령, 법대 학생들이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을 법대 새터에 데리고 가기도 했는데, 자유전공학부를 법대의 후신이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행동이 그런 오해를 불러오는 데 일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선배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 학교 생활에서 선배가 없으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아쉽죠. 우리 학생들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또 고등학교 때의 관습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대학생활은 원래 혼자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유전공학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가도록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시킬 생각도 없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학생설계전공' 이라는 것인데,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선택의 가능성을 가급적 개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법대를 가든 안가든, 자유전공학부를 꾸려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크게 개의할 바가 아닙니다.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입니다. 예컨대,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하라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응용학문 쪽보다는 순수학문 쪽을 전공하기를 기대

하는 습성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용

학문에 관심 있는 학생이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응용학문을 선택하면 타락한 것이고, 순수

학문에 남으면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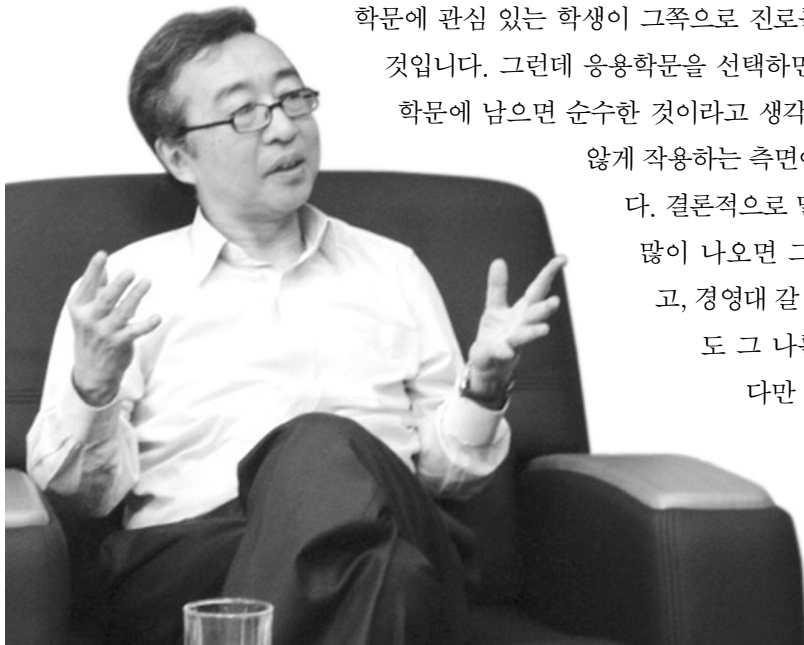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대 갈 학생이

많이 나오면 그 나름대로 좋은 것이

고, 경영대 갈 학생이 많이 나오면 그

도 그 나름대로 좋은 것입니다.

다만 열심히 해서 제대로 공



부하라는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이: 언론에서 '3월 한 달 동안 해보니까 꽤 문제다' 라는 식의 걱정스러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언론에서는 단과대학 하나를 세워놓고 겨우 한 달 만에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한 달 동안에 자유전공학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 한 이년 정도 기다려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방황한다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광역단위 모집의 경우에도 그랬듯이 어느 단과대학이든 전공 없이 들어간 학생들이 방황하지 않는 데는 없습니다.

특정 전공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우리에서 길러지는 소라면, 자유전공학부로 들어온 학생들은 별관에서 방목되는 소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소들은 정해진 것을 먹으면 되지만, 방목하는 소들은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먹을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대신에 이들은 튼튼하고 오래 삽니다. 결국은 그 차이입니다. 즉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입학 초기에 방황한다는 것은 단지 자유전공학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학과나 단과대학에 소속되었든 원치 않는 전공을 선택했거나 장래가 불확실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제가 보기에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그렇다면 학생들의 방황이나 시행착오에 대해서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서: 학생들에게 전공 설계와 관련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교수들에게 찾아가 상담을 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오지 않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역시 일종의 방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교육 과정과 전공 선택

이: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융합학문을 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학생설계전공' 역시 기존에 설치된 전공이 아니라, 융합적이거나 학제적인 전공을 선택

하도록 하겠다는 것일 텐데요. 그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 사실 융합학문이라는 단어는 가급적 안 쓰려고 합니다. 겨우 대학교 1학년인 학생들에게 융합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건 아직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만 ‘구분이 없는, 넓은 의미에서의 지식 흡수’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공 선택에 대한 상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은 저를 비롯한 연구교수님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학기 초라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자유로운 전공 선택과 함께 폭넓은 기초교양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초교양교육 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서: 학점 체계상 기초교양교육 관련 강의를 많이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에는 기초교양교육 커리큘럼이 이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초교양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일반 선택으로 채우는 학점에 대해서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주제 탐구 세미나’ 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주제 탐구 세미나에서는 기존의 전공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인 주제에 대해 여러 전공의 교수님들이 각각의 관심 분야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시간’ 과 ‘생명’ 이라는 두 주제로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주제 탐구 세미나를 3과목 이상 수강한 후에 전공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한 강좌의 개발은 자유전공학부의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 그래서 주제 탐구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재를 발간할 계획도 있고, 또 이번 학기의 주제인 ‘생명’ 부분은 VOD로 제작, 중앙도서관 서버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영혜(이하 '김'): 자유전공학부의 특징적인 교육과정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서: 주제탐구세미나 외에 비(非)교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직 윤곽이 명확하게 정

해진 것은 아니지만, 영어 토론 그룹을 만들어 토론대회를 한다든가 고전읽기를 한다는가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비(非)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교수들과 자주 만날 수 있으며, 그 만남을 통해 전공 선택에 관한 조언이 이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전공을 설계하거나 복수 전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도할 계획이십니까?

서: 여기 들어온 학생들은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했기 때문에 상당히 야심만만합니다. 특히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문·이과에 속한 전공을 동시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제도 때문에 학생들의 의욕이 가로막히기도 하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문·이과 계열간 교차 전공도 가능하겠지만, 그 경우 계열 간 학업능력에 대한 편차가 심해 학생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원하기보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도와주려고 합니다. 가령, 문과 출신이면서 이과 계열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이 수학 강의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자유전공학부에서는 그 학생을 위해서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공 선택 이전뿐 아니라 전공 선택 이후에도 꾸준히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전공을 선택한 후에는 해당 전공학과에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특정 전공학과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며, 여전히 자유전공학부 소속입니다.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전공 선택 이후에도 전공 분야에 멘토를 붙여주는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자극과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자유로운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의 선택이 몇몇 전공학과에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 기본적으로 자유전공학부는 15개 단과대학 중의 하나가 아니라 단과대학들 사이

에 존재하는 단과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전공학부 157명이 전공을 선택할 때에는 의대, 간호대, 사대 등 몇몇 전공 선택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단과대학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중에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으로 선택하겠다는 학생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해당 단과대학에서 그 선택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대에는 상당히 많은 전공 분야가 있고, 그 분야마다 각각의 요건이 다 다릅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전공에 대한 그 요건을 다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수강편람만으로는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기에 연구교수들과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전공 선택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 전공 선택 후의 지원에는 멘토 이외에 어떤 것이 있나요?

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멘토링 서비스 역시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요구에 밀착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과 교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런 기회를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생활문화원이나 교수학습개발센터, 중앙도서관 등 필요한 학내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전공학부의 교수 초빙과 공간 문제

이: 자유전공학부 게시판에는 전임교수를 초빙하는 문제와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우선 공간 문제는 자유전공학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다른 단과대학에서도 전부 겪고 있는 것으로, 대학 본부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전임교수로는 융합적이든 학제적이든 간에 다양한 분야를 하나로 묶어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단과대학에서 교수를 초빙하는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수를 모집하는 기관이

아니고, 발굴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의 교육방식이나 이념에 맞는 사람이 발견되기까지는 교수 초빙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임교수 충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사실 자유전공학부의 강의는 자유전공학부 교수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강의는 자유전공학부 소속 교수가 맡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울대의 교수 모두가 자유전공학부의 교수입니다. 현재 자유전공학부 교수회의 구성원이 8명인데, 그 중 세 명은 자유전공학부에 상주하는 교수이고 나머지 5명은 겸무교수입니다. 겸무교수는 소속 학과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자유전공학부에서 한 강좌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무교수 풀(pool)이 잘 갖춰지면 한정된 인원의 자유전공학부 교수에 의한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현재 학내에서 겸무교수를 신청하거나 앞으로 할 의향을 밝히신 분이 꽤 많아서 앞으로 3~4년간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는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겸무교수들은 기존의 전공 영역에 국한된 강좌가 아니라, 기존의 전공을 실마리로 해 확장된 영역의 새로운 강좌를 개발하여 자유전공학부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탐구세미나도 그런 강의 중 하나입니다.

자유전공학부와 교수학습개발센터와의 관계

이: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육 및 학습, 이러닝, 글쓰기 등의 영역에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유전공학부와 교수학습개발센터 간에는 어떠한 협력 관계가 가능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서: 글쓰기 상담은 전체 서울대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도 필요한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 지원 프로그램인 ‘런하우투런(Learn How to Learn)’ 역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융합적이거나 학제적인 과목을 가르치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서: 그 부분은 지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제 탐구 세미나의 경우 ‘시간’은 세 분이, ‘생명’은 네 분이 협동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우, 각각 서양사학·종교

학·생명공학·진화론 전공의 교수님이 있는데, 누군가 강의 전체를 총괄해 도입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담당 교수들은 ‘생명’이라는 전체 주제에서 각각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지만, 전체 내용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교수법 때문이라기보다는 융합적인 학문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미흡한 점이나 불편한 점에 대한 지적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전공학부의 초대 학부장으로서의 사명감과 앞으로의 운영에 관한 포부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 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